

▶ 보도일시: 2015. 4. 24(금) 조간

<인터넷 4. 23(목) 14:20 이후>

◆ 산업안전과 과 장 황 종 철
사무관 배 기 안
☎ 044-202-7727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moel.go.kr>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>

고질적인 건설현장 추락재해, 「기초안전질서 확립 운동」으로 추방!

- '15.4.23.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주도 한라체육관에서 건설업체 근로자, 노·사 관계자 등 약 2천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된 '건설현장 기초 안전질서 확립 안전수칙 선포 및 준수' 결의대회'에 참석하여
 - * 건설현장에서 추락재해 방지를 위해 3대 기초안전시설^①(작업발판, ②안전난간, ③추락방지망)의 설치 및 ④개인 보호구 착용을 실천하는 운동
-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, **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**를 만드는 일은 **일자리의 양과 질을 높이고 개선**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강조하였다.
- 아울러, 제주지역 경제 활황으로 **산업재해가 급격히 증가**하여 산업재해가 **제주 경제발전**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시점에서
 - * 2014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(2,591억 원)이 제주도 전체예산(3조 8천억 원)의 6.8% 차지
- **제주지역 10개 노사민정기관이 업무협약**을 체결하고,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한 것은 **노사민정 협업의 모범사례이며 시기적절한 조치**라고 말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.
 - * '15.4.23.(목) 11:00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개최된 「제주지역 노사민정 협의회(위원장 원희룡)」에서 10개 노사민정기관 대표들이 "노사민정 상생선언"과 "산업재해예방 업무협약"에 서명하고 실천을 다짐함
- 한편, **제주지역**은 관광산업육성 및 외국인 투자활성화로 재해가 급증*하고, 건설경기 활황으로 건설재해가 다발**함에 따라
 - * '06년 제주특별자치도법 시행당시 **재해자수가 8백 명**대에서 '12년에 최초로 **1천 명**을 넘긴 후, **지난해 1천2백 명**으로 증가
 - ** 제주도 전체 재해자(1,200명) 중 건설업이 42.2%(506명) 차지, **20억 원 미만 현장이 89.9%**(455명), 이중 3억 원 미만인 41.7% 점유
-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**떨어짐(추락)재해 예방**을 위해 **기초적인 4가지 사항***을 반드시 **실천하는 문화를 정착**시키기 위해 '기초 안전질서 확립 안전수칙 선포 및 준수' 결의대회'를 개최하였다.
 - * 기초안전시설(①작업발판②안전난간③추락 방지망) 설치 및 ④보호구 착용
- 이날 행사에서는 **기초안전시설**이 설치되지 않은 건설현장에서 **떨어짐 사고가 발생하는 과정을 실제 시연**해 청중에게 경각심을 주었고,
 - 작업발판, 안전난간, 추락방지망을 안전하게 설치하고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**안전수칙이 선포**되었으며, 건설근로자 등 2천 명의 관중이 **안전수칙을 반드시 실천할 것을 결의**하였다.
-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"제주지역은 관내 건설현장에서 **기초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기초안전질서 확립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**해 나갈 예정"이라고 밝혔다.